

퀸즈 보로장

Aurelio Antonio Arcabascio (R)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우렐리오 아르카바시오입니다. 모두 그냥 토니라고 부르지만요. 저는 퀸즈 보로장직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4 살까지 아스토리아에서 살았고, 이후에는 펜실베이니아주 이리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잭슨하이츠에서 살았습니다. 저에게 퀸즈에서 보낸 성장기와 1 학년부터 8 학년까지 공립학교에 다니며 쌓은 기억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저는 마터 크리스티 고등학교(현 세인트 존스 사립학교)에 다녔습니다. 저는 야구선수로 활동했고 학교와 교구에서 여러 음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Our Lady of Fatima Blue Lancers 드럼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얻은 건 단순히 밴드에서 연주한 경험이 아니라 평생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제 자녀들도 누렸으면 참 좋았을 유년기를 저는 보냈습니다.

우리가 활동적일 수 있던 것은 지역단체들이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기회들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보로장으로서 저는 이러한 기회를 복원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는 자금을 확보하고 지역단체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협동심과 책임감을 심어주고 또 능력도 키워주는 프로그램들을 되살리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우리 보로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퀸즈는 뉴욕시를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새로 도착한 사람들이 뉴욕 다른 곳에 가는 길에 우리 동네들을 지나면서 "돌아가는 길에 한 번 꼭 들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고향 퀸즈에 온 걸 환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